

# 난중일기에 스며있는 역지사지 정신과 사랑

함조현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사는 세상이 정말 이상적인 사회로 바뀐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상상의 끝에 항상 내가 내놓는 답은 구성원 모두 항상 역지사지가 가능한 사람들로 변해있을 것 같다는 거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타인을 나 자신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하고 어떤 문제든 접하게 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난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피 흘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란, 숙신 후연 등 다른 나라를 쳐서 땅을 넓힌 광개토태왕보다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백성을 자신처럼 생각했던 세종대왕을 더 추앙하고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남을 생각하는 역지사지 정신 때문 아닐까?

나는 고통 받는 다른 나라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정복전쟁으로 땅덩이를 넓힌 유명한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보다 나라를, 백성을 자신처럼 사랑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더 존경한다. 난중일기를 읽으며 충무공과 오버랩되는 단어는 역지사지 정신과 사랑이었다. 내가 읽은 난중일기 속 충무공에게 전쟁이란 절대로 정복이나 지배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아픈이고 눈물이고 참혹함 그 자체였다. 충무공은 백성 때문에 눈물 흘렸고, 주위 사람들의 아픔에 가슴 아파했다.

나는 난중일기를 읽으며 충무공의 인격과 도덕성에 감탄하며 언젠가 책에서 읽은 ‘콜버그’라는 사람의 도덕성 이론에서 최고의 단계를 떠올리게 되었다. 충무공이 항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양심이고, 정의가 법이나 규칙의 위에 있음을 난중일기를 읽으며 파악할 수 있었다. 충무공이 말하고자 하는 정의를 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느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높은 인격과 도덕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난중일기에 그 답이 있었다. 임진왜란 중인 갑오년에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는 기운이 가물가물하여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듯하여 장군이 몰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정신과 몸 상태의 어머니께서 다음날 아침식사 후 아들이 하직을 고하였더니 “잘 가서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으라고 두 번 세 번 타이르시며 조금도 이별을 탄식하지 않으셨다는 일기의 내용이 있다. ‘아! 바로 교육의 힘이었구나.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셨기에 다른 이를 크게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질 수 있으셨구나.’ 하고 느꼈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이 급박한 전쟁 속에 내 아들 몸 사리고 너만 살아남아라하지 않으셨다. 충무공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백성과 바꾸어 생각하실 줄 아셨던 분이셨다.

조선은 그 당시 파벌로 갈라진 정치의 틈에서 권력층은 권력을 더 가지려고 서로 싸웠고, 백성은 그 사이에서 신음하였으며, 그 결과 전쟁을 부르게 되었다. 난중일기에는 적이 외부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자신만 생각하고 역지사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면 그리고 권력욕이 얼마나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가는 충무공을 끌어 내리고, 앞을 막은 것은 왜적 뿐만 아니라 내분의 동료, 상관, 권력층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이 들며 정말 답답하였다.

최근 어떤 연예인의 사적인 잘못이 이슈가 되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보통사람이면 아닐텐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사적인 잘못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니냐고 부모님께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셨다. 유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한국사 시간에 임진왜란을 공부하며 그 시대 백성들이 참 외롭고 비통했겠구나 생각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터지자 나라를 대표하고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선조 왕과 신하들은 20일도 안되는 날 동안 짓밟히는 백성들을 버리고, 궁을 버리고 자신들만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왕이 버리고 간 자리가 이름 모를 의병들의 죽음으로 채워지고, 백성들의 처절함으로 메꾸어졌다.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은 백성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나는 임진왜란 당시 모함으로 충무공의 앞길을 막았던 여러 정치인과 지도층을 난중일기에서 접하며 분노했지만 현재 나에게 그때의 정치인들을 닮은 부끄러운 구석이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충무공을 감히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난중일기는 말하는 것 같다. 다른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라고...